

# 대중매체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문제점

SNS의 확산이 가지고 온 역기능을 중심으로

학수번호	000200C-12
담당교수	박필현 교수님
이름	김태연
학과	한국역사학과
학번	20230221
연락처	01085138458
제출일	2023. 6. 16

# 대중매체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문제점

SNS의 확산이 가지고 온 역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역사학과 김태연

-목차-

- I. 서론
- II.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의 확산
  - 1. SNS 속 가짜뉴스 확산
  - 2. 무분별한 공유의 문제
- III. 에코 챔버로 인한 사회 속 양극화
  - 1. 필터 버블과 확증 편향의 심화
- IV. 개인정보 유출과 2차 범죄 문제
- V. 해결책 및 완화 수단
  - 1. Gawq
  - 2. 미디어 리터러시
- VI. 결론
- 참고문헌

## I.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SNS의 장' 이라고 할 만큼 SNS를 통해 모든 정보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사회이다. SNS란 무엇인가? SNS의 사전적 정의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로, 웹상에서 사용자 즉, 사람들이 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넷 서비스이다. 대표적인 웹 서비스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SNS는 인터넷 발전과 함께 현대 사회에 새롭게 떠오른 대중매체의 변화이며, SNS의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정보의 수집과 가공, 확산 및 재생산이 고도화 되었다. SNS가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대중매체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우리의 삶은 매우 편리하게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SNS를 통한 범지구적 소통 방향은 하나의 국가를 넘어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데에 일조하였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새롭게 등장할 정도로 개인의 파급력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형성되었다. 누구나 개인의 창작물과 정보를 SNS에 게재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제한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사회가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가치를 실현해 낼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SNS의 확산이 가져온 역기능 또한 존재한다. 정보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출처가 불분명해지면서 잘못된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속화된 정보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속 흐름에 도태되는 사람이 발생하여 정보 양극화가 생겨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해킹 범

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이 SNS의 확산으로 인해 생겨나고 있는 오늘날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주목하고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SNS의 사회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본 보고서와 비슷한 맥락의 선행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필자가 조사한 결과 ‘SNS의 역기능’ 그 자체에 다른 연구는 적었으며, 우리가 직접 이해하고 경험해 봤을만한 내용들로 구성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본 보고서는 좀 더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직접 경험해 봤을만한 문제점을 가지고 SNS의 역기능을 강조하여 이에 대해 주의하고 경계하는 도움을 주고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글의 대상이 되는 것은 SNS의 문제점이며, 결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하는 우리사회의 노력과 우리가 SNS 사용 시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 II.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의 확산

인터넷 발전과 함께 SNS가 확산되면서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수가 소비하는 인터넷 상에 게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보의 생산자, 소비자라는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 결과로 인해 가짜뉴스, 즉 거짓된 정보가 SNS를 통해 다수에게 전달되어 사실처럼 퍼지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사례가 다수 등장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연예인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SNS상에서 무분별하게 생산, 유포되고 있다. 가수 송가인과 관련되어 최근 유튜브에 송가인이 가수 김호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며,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내용의 가짜뉴스 영상이 퍼졌다. 이에 송가인은 "유튜브에 올라온 아님 말고 식 가짜뉴스로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 같다. 법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인의 심정에 대해 호소하기도 하였다.<sup>1)</sup> 또한 현빈, 손예진 부부도 최근 유튜브를 통해 퍼진 이혼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이에 법적 조치 할 것을 강경하게 밝혔다. 영상에서는 현빈이 해외 도박을 했으며, 손예진과 이혼했다는 내용이 담겼다.<sup>2)</sup> 이처럼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다수의 사례가 있어왔다. 특히 대중에게 보이는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연예인들에게 이러한 가짜뉴스는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 SNS 속 가짜뉴스 확산의 문제에는 거짓된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검증 없이 공유 하는 소비자들 또한 문제의 원인이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신이 본 SNS 게시물 중 흥미로운 것들을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 게재하곤 한다. 미국 국립 과학 원회보는 “잘못된 정보 공유는 습관적이다.” 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sup>3)</sup> 18~89세 사이 페이스북 사용자 약 2500명을 대상으로 게시물을 공유하는 습관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SNS 공유의 습관적 사용자와 일반적 사용자로 나눈 뒤 가짜 뉴스와 정확한 뉴스를 섞어 제공 한 후 사실로 판단한 내용만 공유하도록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습관적 사용자는 30%의 가짜뉴스를 공유했고, 정확한 뉴스도 42%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 사람들의 사고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 SNS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공유하고자 하는 ‘습관’ 때문이

1) 김도아(2023. 3. 20), 「현빈·손예진, 이혼설 등 가짜뉴스에 강경 대응 방침 "법적 조치"」, <<데일리한국>>

2) 조은애(2023. 3. 21), 「송가인 , 김호중과 결혼 임신설 가짜뉴스에 분노 “법적 규제 마련되야”」, <<스포츠 한국>>

3) 황인솔(2023. 1. 26), 「“SNS 속 가짜 뉴스는 ‘습관’ 때문에 퍼진다”」, <<한겨레>>

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은 무분별한 공유는 가짜 뉴스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SNS 시스템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좋아요, 댓글, 공유의 개수를 통해 인기도를 매겨 상위 노출시킴으로써 게시물의 파급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소비자들은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SNS 게시물이 검증 가능한 내용인가, 신뢰성이 있는 내용인가를 확인한 후 게시물을 공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III. 에코 챔버로 인한 사회 속 양극화

미디어에서 에코 챔버란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소통하면서 점차 편향된 사고를 갖게 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시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소통하게 된다.<sup>4)</sup> 이것은 필터 버블이라는 인터넷 알고리즘의 특징으로 인해 심화되는데, 필터 버블이란 사용자의 위치, 검색 기록, 게시물 시청 기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추천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버블 안에 갇힌 것과 같은 알고리즘을 비판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필터 버블이 문제점이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장 먼저 필터 버블에 갇힌 알고리즘은 공신력 있는 뉴스와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구분 없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는 1.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의 확산에서 다루었던 내용처럼 사용자들이 가짜 뉴스에 강제로 노출되게 되고, 이를 또 다시 사용자들이 무분별하게 공유하면서 가짜 뉴스가 빠르게 확산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장 큰 문제는 필터 버블에 갇힌 알고리즘이 정보 편향을 심화시켜 정보의 양극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알고리즘이 사용자 기존 의견과 부합하는 정보만을 노출시켜 이를 통해 정보 양극화를 촉발시킬 수 있고, 결국 사용자들은 온라인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한 후 극단적인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된다. 이는 SNS 사용자의 '확증 편향' 심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확증 편향이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론 및 정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져만 가고 있다. MZ세대의 약 61%가 SNS로 뉴스를 접하는 시대인 만큼, SNS의 편향된 정보 노출이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보수 신문사를 처음 클릭하게 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보수 신문사만을 알고리즘으로 띄워주고, 진보 신문사를 처음 클릭하게 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진보 신문사만을 알고리즘으로 띄워주게 되면 편향된 사고만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좌우가 소통하고 화합해야 할 민주주의의 정치 공론장이 붕괴되어 사회 협력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에코챔버 현상의 문제는 정치계뿐만이 아니다. 젠더갈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갈등, 세대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도 기존의 사용자가 가지고 있었던 의견에 더해 편향적인 시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잠재적 가능성을 저해하여 공론장과 사회 안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sup>5)</sup>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려고 노력하는 사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SNS를 통해 정보를 수용할 때 필터 버블에 둘러싸여 편향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인터넷 알고리즘을 그대로 수용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양쪽 모두 어우러진 화합된 정보 수용

4) 작성자 미상, 「에코 챔버(Echo Chamber)」, 폭스, <https://www.dokdok.co/brief/echo-chamber> (2023. 6. 10)

5) 한규섭 외 3인(2013.3), 「트위터 팔로잉 관계에 대한 대표성과 양극화에 대한 논의 검증」,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30-1,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322~327쪽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의 신념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법, 입증되지 않은 생각이 명확한 증거에 의해 모순이 발견되면 기꺼이 버리는 법이 중요한 것이다.<sup>6)</sup>

#### IV. 개인정보 유출과 2차 범죄 문제

SNS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21년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에서 약 5억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밝혀졌다.<sup>7)</sup> 미국 로이터 통신은 한 해외 해킹 관련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 약 106개국의 페이스북 이용자 약 5억 33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공짜’로 공개되었다고 보도했다. 아이디, 이름,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정보들이 유출되었고, 많은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에 대해 반발과 유감의 표시를 보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이버 금융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션, 싸이월드, 신용카드 3사 등 20여 년간 국내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새로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sup>8)</sup> 위와 같은 플랫폼에서 해킹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은행 등 금융 관련 플랫폼에 부정 로그인을 시도하여 해킹을 유도하곤 한다. 위 기사에서 알려진 바로는 다행히 OTP 비밀번호 보안으로 인해 출금 피해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범죄 사례가 있을 수 있고, 한 금융보안전문가는 “해커는 금전 이득은 얻지 못했지만 5만6000건 로그인에 성공해 계좌번호와 잔고 등을 파악했다”면서 “향후 또 다른 범죄에 악용할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야기된 심각한 사회문제는 사이버 금융 범죄뿐만이 아니다. 한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야기된 범죄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서울교통공사의 인터넷 전산시스템 상 허점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었다. 회사 내 부망 전자자원관리 내부의 인터넷 회계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의 집주소와 근무지를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환은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얻은 얇은 지식을 통해 회계 시스템에 접근하여 범행을 계획하였다.<sup>9)</sup> 이처럼 여러 스토킹 및 성범죄 사건에서 인터넷 상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SNS의 시스템 상 허점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사용자들도 아무런 위혐의식 없이 자신의 정보를 SNS에 게시하곤 한다. 가족관계, 연락처, 소속 학교 등을 자연스럽게 SNS에 게시하며 자발적으로 유출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면서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위와 같은 기사에 나온 것처럼 중대한 범죄로 야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에 경계하면서 SNS의 개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킹에 대응하고 기술적으로 유출에 대한 허점 없는 시스템의 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 SNS 사용자들도 신중하게 자신의 정보를 SNS 상에 공유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SNS에 게시한 자신의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 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되도록 게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작성자 미상,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독스, <https://www.dokdok.co/brief/echo-chamber> (2023. 6. 10)

7) 이승호(2021. 4. 4), 「한국도 12만명 털렸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5억명 넘어」, <<중앙일보>>

8) 김인순(2018. 8. 2), 「유출 개인정보 새로운 범죄 이용...후폭풍 분다」, <<전자신문>>

9) 임민정(2022. 9. 22), 「스토킹 범죄,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에서 시작된다」, <<노컷뉴스>>

## V. 해결책 및 완화수단

Gawq은 가짜뉴스 문제와 소셜 미디어 문제가 만들어내는 에코 챔버 효과 문제를 대처하려는 스마트 뉴스 앱 스타트업이다.<sup>10)</sup> Gawq가 선보인 뉴스 앱은 사용자가 다양한 필터링 소스들을 통해 뉴스들을 비교해가며 사실 여부와 정확도를 확인해가며 서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앱이다. Gawq에서 파급력 있는 뉴스 기사가 되려면 클릭이나 공유 숫자가 아니라 이 앱의 핵심을 이루는 윤리에 근거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앱에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뉴스 소스를 담고 있다. 비즈니스, 정치, 과학 등 다양한 주제를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정리된 소스 내에서 다양하게 사용자가 주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Gawq앱은 뉴스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 라벨 기능을 통해 콘텐츠를 자동식별 하고 태깅한다. 이처럼 Gawq앱은 소프트웨어 과학 기술의 새로운 개발을 통해 앞서 말한 SNS의 문제점 가짜뉴스의 확산과 에코 챔버로 인한 양극화를 해결 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술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SNS 사용자들도 건강한 정보를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중요하게 논의 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미디어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비평하고, 새롭게 창조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관습을 말한다. 사용자가 SNS나 미디어를 시청하는데 있어서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식적 능력’을 뜻하는 것이다. 가짜뉴스, 편향된 정보와 같은 나쁜 미디어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고민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나 정신적, 지능적 성장기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은 중요한 교육으로 꼽히고 있다.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다. 자녀의 SNS 사용에 걱정을 느끼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낀 학부모가 응답자의 약 85%를 차지했다.<sup>11)</sup> 이처럼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인지하고, SNS상의 노출된 정보들에 대해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소비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 VI. 결론

본문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 사회 SNS가 대중매체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준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다. 그에 따른 예시가 첫 번째 가짜뉴스의 확산, 누구나 SNS 상의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음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거짓 사실이 전 세계로 유포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다수 등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에코 챔버로 인한 사회 속 양극화, SNS의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만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 속 이슈들에 대해 편향된 지식과 사고를 가지게 되어 사회적 논쟁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범죄, SNS에 게재된 개인정보들이 기술적, 의도적으로 노출되어 금융범죄나 스토킹 범죄와 같은 2차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Gawq앱이나 미디어 리터러시와 같은 해결책을 소개하였고, 결론적으로 사용자들이 SNS 상에서 건강하게 정보를 소비하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뒤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술적 발전 또한 SNS의 문제점을

10) 이석원(2021. 1. 13), 「가짜뉴스 등 에코체임버효과 해결하려는 뉴스앱」, <<startuprecipe>>

11) 조수연(2022.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왜 필요한가? 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의와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 <<행복한 교육>>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보고서의 한계점은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다양한 사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마지막으로 대중매체의 발전은 우리에게 크나 큰 편리함과 행복감을 주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행복을 누리는 만큼 그에 따르는 부작용 또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책임'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 [참고 문헌]

김도아(2023. 3. 20), 「현빈·손예진, 이혼설 등 가짜뉴스에 강경 대응 방침 "법적 조치"」, <<데일리한국>>

조은애(2023. 3. 21), 「송가인 , 김호중과 결혼 임신설 가짜뉴스에 분노 "법적 규제 마련되야"」, <<스포츠 한국>>

황인솔(2023. 1. 26), 「"SNS 속 가짜 뉴스는 '습관' 때문에 퍼진다"」, <<한겨레>>

작성자 미상,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톡스, <https://www.dokdok.co/brief/echo-chamber> (2023. 6. 10)

한규섭 외 3인(2013.3), 「트위터 팔로잉 관계에 대한 대표성과 양극화에 대한 논의 검증」,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30-1,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322~327쪽

이승호(2021. 4. 4), 「한국도 12만명 털렸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5억명 넘어」, <<중앙일보>>

김인순(2018. 8. 2), 「유출 개인정보 새로운 범죄 이용...후폭풍 분다」, <<전자신문>>

임민정(2022. 9. 22), 「스토킹 범죄,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에서 시작된다」, <<노컷뉴스>>

이석원(2021. 1. 13), 「가짜뉴스 등 에코체임버효과 해결하려는 뉴스앱」, <<startuprecipe>>

조수연(2022.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왜 필요한가? 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의와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 <<행복한 교육>>

-우수과제 응모-

귀하가 제출한 본 서면은 교육 목적의 교재 제작과 수업 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 승낙을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